산업통상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11. 10.(월) 06:00 < 11.10.(월) 석간 > 배포 2025. 11. 7.(금)

한-영국 자유무역협정(FTA) 6차 개선협상 개최

- 11.10.(월) ~ 14.(금), 서울
- 서비스, 투자, 디지털무역, 금융, 총칙 등 8개 분과 협상 -

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견고한 수출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, 유럽 내 주요 교역·투자 상대국인 영국과의 FTA를 개선하기 위한 제6차 개선협상이 11.10(월)~14(금) 서울에서 개최된다.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통상교섭실장과 영국 측 아담 펜(Adam Fenn)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.

영국의 유럽연합 탈퇴(Brexit) 후 한·영 양국은 한-EU FTA 수준으로 한-영 FTA(’21년 발효)를 체결한 바 있다. 양국은 엄격한 현행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간 투자·교역을 확대하고, 공급망 교란 대응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년 1월 1차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. 양국은 6차 협상에서 서비스·투자 등 잔여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.

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장을 방문, 양측 수석대표와 협상단을 격려하며 “개선된 한-영 FTA는 추가 시장개방과 더불어, 공급망 교란 대응,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포괄적으로 반영한 현대적인 협정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고, “금번 협상에서 잔여 쟁점을 최대한 합의하여 조속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	책임자	과장	손호영 (044-203-583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3-583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